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甲洙
編輯人兼 韓東元
主 幹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중앙종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수단신청 종파·지파 중심으로 독려키로

편찬소위원회 편찬팀 회의



5월 24일에 개최된 편찬위원회 회장단 회의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소위원회 편찬팀(駿錫편찬소위원장, 基虎도유사, 星燮중앙회총무부회장, 吉洙부유사, 相容부유사, 鍾仁중앙회 상무)은 지난 6월 13일 오전 중앙회 회의실에서 甲洙중앙회장, 편찬소위원회 陽命고문, 益洙고문, 중앙회 百賰, 成龍부회장, 서원군파 敬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회의에서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수단신청을 각 종파와 지파(支派)를 중심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순회 일정까지 세웠다.

이와같은 방침은 지난 5월 24일 개최된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위원회 제2

차 종파 및 광역시·도회장단회의에서 회장들이 수단신청을 적극 독려하기로 하고 많은 수단신청서까지 수령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취해진 것이며, 이미 6월 초순부터 많은 종파와 지파에서 모임을 가졌거나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중앙회 편찬위원들 각 종파와 지파의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편찬위원회와 편찬소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수단신청에 따른 접수 및 편찬업무를 실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편찬팀은 편찬일정과 수단 비용 등을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확정, 지난 5월 24일의 편찬위원회 회장단회의에 보고했다.

편찬일정 및 수단

▲편찬일정

- ① 수단 접수기간 : 2012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으로 한다.
- ② 입력 및 개통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2개월간으로 한다.
- ③ 2013년 상반기 중 완결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근거로 종파 또는 개인의 주문을 받아 한글과 한문이 병기된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한다.

▲수단금

- ① 수단 비용은 1인당 12,000원 (부부는 1인으로 간주)이며, 기혼자, 미혼자, 출가녀, 신규 입보자, 사망자, 내용 수정 등은 수단금을 납부해야만 족보에 등재된다.
- ② 1건 기준 50명 이상 단체로 접수

- 할 경우 30%를 할인하여 문중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 ③ 서원군파 및 문간공파의 CD파보 보유자의 수단금은 추가비용부담을 감안하여 3분의 2를 할인하여 4,000원으로 한다.

▲사진 등재비

사진 1매당 12,000원이며, 사진은 개인사진, 가족사진, 표창장 사진, 묘소, 묘비, 묘소약도 사진 등을 등재할 수 있다. 수단신청시 함께 하면 된다.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 예약 「7교청주한씨대동족보」전질 또는 파보를 보책으로 원하는 일가는 수단신청시 1질당 5만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보책가격은 주문 수량 등에 따라 결정되는대로 추후에 통보한다.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 재개에 즈음하여



甲洙중앙종친회장 담화

청주한씨중앙종친회는 2012년 말까지 완결을 목표로 한글과 한문(漢文)을 병기한 「제7교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을 6월1일부터 재개했으며, 이에 호응한 일가분들의 수단신청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완결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니다.

이 사업은 제가 23대 중앙회장으로 재임중이던 2010년 9월 1단계로 일단 마무리했으나, 2012년 3월 24대 회장으로 다시 연임되면서 당시 누락된 모든 일가분들에게 수단신청의 기회를 주기위해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며, 이 사업이 완결되면 2013년에는 젊은 세대들도 함께 볼 수 있게 한글과 한문이 병기된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간행, 보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1일에 열린 종파(宗派) 및 광역시·도종친회 회장단회의에서는 이 사업의 재개를 만장일치로 결의한데 이어 5월24일 두 번째로 개최된 회장단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한 끝에 종파회장들과 광역시·도종친회장들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중회 일가분들을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면담하여 수단신청을 적극 독려하기로 함으로써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100만 일가 여러분! 우리 청주한씨는 우리나라 280여 성씨(姓

氏)중에서도 명문(名門) 중의 명문에 속하는 성씨입니다. 우리들의 족보(族譜)가 바로 그 기록(記錄)이며 증빙(證憑)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귀중한 「청주한씨대동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야말로 명문의 후손으로서 조상의 뿌리를 바로 알게하고 명문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正性)을 찾게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인터넷족보」는 이제 더 이상 비켜갈 수 없는 오늘날의 대세이며 더욱이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인터넷족보」는 후손들에 대한 귀중한 유산(遺産)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름을 올려야 하겠습니까. 초고속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되면서 인터넷이 아니고는 서로가 연락하거나 연결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 세대가 족보편찬 역사상 최초로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인터넷대동족보」를 완결하게 된다면 2010년 9월 1,000년 이상 방치되어 온 시조탄생유지를 성역화하여 건립한 「淸韓閣」과 함께 우리 청주한문 역사상 길이 남을 찬란한 금자탑(金字塔)이 될 것입니다.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제7교청주한씨인터넷대동족보」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알고 종파회장들과 광역시·도종친회장들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께서는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 독려해 주시고, 모든 일가들께서는 소속 종파회장(宗派會長)의 자문(諮問)을 받아 빠짐없이 조속히 수단신청을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항간에는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면서 족보와 관련한 책자를 강매하거나 유사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들이 있으니 유의하시고, 구매를 강요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중앙종친회(02-720-6370~1)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종친회에서는 책자 등을 강매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장학기금납부 내역 (9~12월) 단위: 천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61	교위공관위장학회명수	10,000	60,300
120	화갑(서울 마포구)	1,000	2,200
63	규철(경남 창원시)	180	4,140
258	철수(서울 관악구)	100	2,650
1582	이회리정온공중중	100	550
1789	순구(서울 강남구)	100	350
1688	인규(부산 부산진구)	50	450
1926	상천(인천 부평구)	50	150
1966	상식(경기 부천시)	50	50
1965	태병(서울 강동구)	30	30
1761	기준(강원 강릉시)	20	160
354	양석(충남 당진군)	10	50
453	원섭(서울 영등포구)	10	200
457	재규(서울 용산구)	10	280
504	일웅(경기 남양주시)	10	41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	240
1760	봉희(서울 광진구)	10	160
1950	창엽	2	9
1951	기택	2	13
1955	배유자	2	8
1956	기원	2	8
합 계		11,748	

일반찬조헌성금 (3~4월) 단위: 천원

이름	금액	
삼재관리위원회	200	
양명 상임고문	100	
성용 자문위원(경기 광주시)	100	
삼량 이사(서울 관악구)	100	
철수 이사(서울 관악구)	100	
무산(서울 관악구)	50	
합 계		650

단체종보비 (3~4월) 단위: 천원

이름	금액	
삼재관리위원회	500	
평해공파수원중중	300	
감사공안산중중	200	
마포구종친회	200	
곡성군종친회	100	
부정공파 강릉종친회	100	
낙안공종친회	100	
무주군종친회	50	
합 계		1,550

개인정보비 (3~4월) 단위: 천원

이름	금액
종현(충남 금산군)	100
순구(서울 강남구)	100
홍수(서울 도봉구)	50
택수(서울 송파구)	50
충현(서울 노원구)	50
인규(부산 부산진구)	50
우선 부회장(충무담당)	50
상천(인천 부평구)	50
대봉(울산 중구)	50
기덕 이사(충남 당진군)	50
갑수 부회장(대전시 회장)	50
재선(경기 평택시)	40
택동(경기 성남시)	30
춘연(서울 광진구)	30
창수(충남 당진군)	30
창성 이사(서울 서초구)	30
창동(서울 강남구)	30
진섭(충북 영동군)	30
준기(충남 천안시)	30
인수(서울 강북구)	30
인석(경기 하남시)	30
용관(서울 송파구)	30
석준(광주 광산구)	30
상호 이사(충남 부여군)	30
상권(경북 구미시)	30
봉주(충남 서산시)	30
규현(광주서구 마락동)	30
경석(전남 영광군)	30
호석(경기 고양시)	20
치환(인천 부평구)	20
충호(강원 원주시)	20
춘태(충북 증평군)	20
창광(서울 금천구)	20
철우 부회장(사속공추모회장)	20
철수 운영위원(관악구 회장)	20
창윤(부산 사하구)	20
창섭(서울 강남구)	20
창섭 이사(인천 강화군)	20
창민(경기 가평군)	20
지우(서울 서초구)	20
중섭(서울 영등포구)	20
중희(경기 성남시)	20
정희(경기 평택시)	20
정준(서울 은평구)	20
정석(서울 금천구)	20
일웅(경기 남양주시)	20
일선(전남 나주시)	20
이덕 이사(경기 안양시)	20
원석(서울 구로구)	20

이름	금액	
윤열(경기 의왕시)	20	
용수(경기 고양시)	20	
양섭(전남 화순군)	20	
승욱(광주 북구)	20	
순(서울 성동구)	20	
성태(충북 증평군)	20	
성우(경남 진주시)	20	
상식(경기 성남시)	20	
석구 이사(서울 관악구)	20	
상훈(경기 성남시)	20	
상후(충남 천안시)	20	
상태(서울 은평구)	20	
상조(광주 서구)	20	
상식(경기 부천시)	20	
상선(경기 용인시)	20	
상동 이사(경기 화성시)	20	
상규(충남 보령시)	20	
봉수(서울 강동구)	20	
병진(전북 남원시)	20	
문교(충북 청주시)	20	
무산(서울 관악구)	20	
명식(강원 원주시)	20	
명수(경기 고양시)	20	
만응(충남 서산시)	20	
만수(경북 영천시)	20	
만석(서울 중랑구)	20	
두식 이사(서울 종로구)	20	
동희(충남 보령시)	20	
도영 이사(인천 중구)	20	
대수(충북 청주시)	20	
기욱(전북 익산시)	20	
기수(강원 춘천시)	20	
기삼(광주 서구)	20	
규철 이사(경남 창원시)	20	
광희(경기 이천시)	20	
광전 부회장(경기도 회장)	20	
광수(대전 서구)	20	
관영(서울 강남구)	20	
경재(경기 양주시)	20	
강현(충남 아산시)	20	
재규(서울 용산구)	10	
원섭(서울 영등포구)	10	
오(충북 청주시)	10	
양석(충남 당진군)	10	
봉희(서울 광진구)	10	
국열(경기 성남시)	10	
공필(서울 동작구)	10	
선(경남 고성군)	5	
합 계		2,465

운영회비 (3~4월) 단위: 천원

이름	금액	
갑수 회장(중앙회장)	5,000	
양명 상임고문	3,000	
근수 부회장(감사공파회장)	1,000	
명섭 부회장(경기 안양시)11년도분	1,000	
상일 부회장(문양공파회장)	1,000	
일환 부회장(제전담당)	1,000	
태수 부회장(청년담당)	1,000	
갑수 부회장(대전시 회장)	500	
광전 부회장(경기도 회장)	500	
석영 부회장(영흥공파회장)	500	
장훈 부회장(충북도 회장)	500	
창화 부회장(광주시 회장)	500	
길수 부회장(송지공파회장)	300	
철우 부회장(사속공추모회장)	300	
기학 이사(경남 함안군)	300	
종관 이사(울산 북구)	300	
복섭 자문위원(전남 강진군)	200	
추태 감사(충남 천안시)	200	
종태 운영위원(곡성군 회장)	200	
철수 운영위원(관악구 회장)	200	
기수 운영위원(전주시 회장)	200	
상엽 이사(경기 안산시)	200	
갑창 이사(전북 전주시)	100	
공우 이사(충남 천안시)	100	
규철 이사(경남 창원시)	100	
기덕 이사(충남 당진군)	100	
기호 이사(충북 충주시)	100	
도영 이사(인천 중구)	100	
만우 자문위원(울산 남구)	100	
만희 이사(전북 전주시)	100	
병수 자문위원(경남 마산시)	100	
상동 이사(경기 화성시)	100	
상분 이사(경기 수원시)	100	
상필 이사(충남 청양군)	100	
상희 이사(대전 중구)	100	
생기 이사(경북 고령군)	100	
석구 이사(서울 관악구)	100	
성규 이사(경기 광주시)	100	
성규 이사(서울 동대문구)	100	
우선 부회장(충무담당)	100	
운교 이사(전남 구례군)	100	
윤동 이사(경기 김포시)	100	
윤수 이사(서울 송파구)	100	
이덕 이사(경기 안양시)	100	
일권 이사(서울 강북구)	100	
임동 이사(경기 남양주시)	100	
종언 이사(서울 종로구)	100	
중호 이사(인천 남구)	100	
창상 이사(충북 보령시)	100	
창섭 이사(인천 강화군)	100	
창섭 자문위원(경기 안성시)	100	
창성 이사(서울 서초구)	100	
창희 이사(강원 원주시)	100	
현섭 이사(광주 남구)	100	
화교 이사(경기 부천시)	100	
중수 이사(부산 수영구)	60	
합 계		21,260

종파, 광역시·도회장들 수단신청 독려 나서 중앙회 편찬위 임원들 종파 모임 순회키로

편찬위 회장단회의

중앙총친회가 2012년 6월 1일을 기해 재개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은 지난 5월 24일의 종파회장단 회의에서 2012년 12월 말까지의 완결을 재확인한데 이어 50여 종파회장들과 광

역시·도총친회장들이 중앙회에서 수단 신청용지와 자파「인터넷대동족보」복사본 등을 수령하여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전개하면서 오류내용도 찾아내기로 하는 한편 중앙회에서는 편찬위원회 임원들로 하여금 각 종파와 지파(支派)를 순회하거나 모임에 참석하여 독려활동을

전개하기로 함으로써 수단신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甲洙중앙회장(편찬위원장 겸임)은 편찬위원회 회장단회의에서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찾아 철저히 바로잡도록 하겠으며 각 종파별로

「인터넷족보」내용을 복사하여 배포한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한 것이니 수단신청 독려와 함께 오류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이번에 재개한 「인터넷족보」편찬사업은 특별회계로 하여 철저한 회계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원군파·문간공파 적극 참여 뜻 밝혀 敬洙회장, “인터넷족보 편찬 적극 협조하겠다”



甲洙 중앙회장이 西情會 총회에서 인터넷 족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西情會 총회에서

6월부터 재개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은, 지난 2010년 9월에 마무리된 1단계 편찬사업에서 수단신청이 지나치게 저조했던 서원군파중종과 문간공파중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는 한

편 특히 서원군파에서는 편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소중중 대표 회의를 6월 중에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많은 소중중에서 참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어 수단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될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서원군파 敬洙회장은 지난 6월 14일 서

원종로구 관수동 은행나무집에서 열린 서원군파내 증진들의 친목모임인 서정회(西情會·회장 吉洙) 총회에서 격려사를 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아주 깨끗이 정리된 진짜 대동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제하고 “우리 서원군도 이번에 적극 참여하여 제대로 된 족보 편찬에 협조하겠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온 甲洙회장에 큰 박수를 보내자”고 제의하면서 만장의 박수를 유도했다. 한편 21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서원군파내 소중중 대표 회의를 6월 중에 갖기로 했다.

서정회 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마처럼 얽힌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완벽하고 허자가 없는 대동보로 편찬, 정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甲洙중앙회장에게 큰 힘을 실어드리자”고 제창,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

甲洙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편찬하는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서

는 6교대동보와 7교인터넷족보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바로잡아 완벽한 국한문(國漢文)으로 편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멋있게 물려주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서원군파에서 수단신청이 너무 저조했다. 나도 서원군의 후손인데 특히 서원군파에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甲洙회장은 “우리 양혜공파는 진짜 후손들을 빼내버리고 가짜가 들어와 있으니 정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상호상무의 진정에 대해 “증거서류를 가지고 와서 시정요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陽命상임고문은 격려사에서 “우리 서원군파에 이런 모임이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재의 청한장학기금 23억원을 35억원으로 늘리는 장학기금 확충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청장년회장을 지낸 元敎중앙회 재정부장은 “중사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한번 결정한 사항은 대동단결 차원에서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모두가 박수로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문간공파 駿錫회장은 6월16일 「문간공파에서도」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대세라고 밝히고 “많은 소중중에서 수단신청을 독려하고 협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판서공파 3,000여명 수단신청에 긍정적 종파들, 모임 잇달아 열고 수단신청 논의

▲판서공파에서는 相英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약 3,000명의 자파 일가들로부터 수단신청에 긍정적인 언약을 받았으며 단시일내에 수단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다른 종파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基虎도유사와 相基 전 인천시총친회장은 6월 7일 판서공문중을 방문, 수단신청을 독려했다.

▲감사공파(회장 權洙) 7형제 문중회장 등 13명의 임원들은 지난 6월7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陽命중앙회 상임고문의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일가들에 대한 수단신청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문정공파 삼등공파(회장 東協)는 6월 12일 개최한 총회에서 수단신청방안을 논의했으며, 成龍 전 회장은 일가들의 수단신청비를 종재(宗財)에서 지불하자고 제의, 많은 일가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단시일내에 자파문중회의를 열어재론하여 결정키로 했다.

▲문정공파 영흥공파(회장 樞永)는 수단지를 수령한 후 6월 15일 서울 제기동에서 이사회를 겸한 2012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 수단신청방안을 협의했으며, 중앙회

에서 陽命 상임고문, 駿錫 편찬소위원장, 基虎 도유사, 백춘 부회장, 星燮부회장, 相容 부유사 등이 참석하여 한글과 한문이 병기된 「인터넷대동족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수단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특히 星燮부회장은 “영흥공파는 淸韓閣 건립 때 현성금 배경액 2,000만원 보다 많은 3,500만원 이상을 현성하면서 선도적역할을 했는데 이번의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甲洙 중앙회장의 격려사를 전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영흥공 셋째 아들(휘 윤홍)문중의 소재를 찾아내야 한다는 안건도 상정되어 「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樞永회장은 편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총친회 光傳회장은 6월3일 장도공파 흥림공파 모비제막 고유제에 참석, 참가자들에게 편찬홍보지를 배포하고 편찬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수단신청을 독려했다.

▲5월24일의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거나 참석했으나 사정에 의해 수단지를 수령하지 못한 종파 중 안양공파총친회(회장 道淵), 판관공파총친회(회장 基仁), 부산시총친회(회장 太燮), 대구·경북총친회(회장 燮燮), 대전시총친회(회장 甲洙), 전북총친회(회장 泳敎) 등은 6월5일부터 8일 사이 중앙총친회를 방문, 수단지 등을 직접 수령해 갔으며, 다른 나머지 종파에서도 택배등을 통해 수단지를 수령하여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중앙회 陽命상임고문, 駿錫 편찬소위원장, 基虎도유사, 百賰, 成龍, 星燮부회장 등 편찬위원들은 6월18일 충청공문중(회장 상근), 6월21일 전북총친회(회장 泳敎), 안양공문중(회장 상훈), 6월 22일 인천시총친회(회장 창섭), 6월26일 세마공문중(회장 연동), 6월27일 대구·경북총친회(회장 燮燮), 문계공문중(회장 命洙), 6월28일 대전총친회(회장 甲洙), 7월3일 도장동공문중(회장 삼석), 7월 초 충남도총친회(회장 相旭), 정혜공문중(회장 琳泰) 등의 각종 회의와 모임에 참석, 수단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駿錫편찬소위원장



각 문중의 종파, 지파회의를 가급적 많이 갖도록 유도하고, 편찬위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수단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280여 성씨중 으뜸가는 성씨로서 타성보다 우월한 인터넷족보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하겠다.

基虎 도유사



곧고, 바르고, 누락없는 인터넷족보를 만들겠다. 이번에 누락되면 보책(譜冊)의 경우 30년 후이나 등재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시켜 빠짐없이 수단신청을 하도록 하겠다. 6교대동보 끝부분에 있는 선계(先系)불명을 가급적 밝혀내도록 하겠다.

점을 주시시켜 빠짐없이 수단신청을 하도록 하겠다. 6교대동보 끝부분에 있는 선계(先系)불명을 가급적 밝혀내도록 하겠다.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 재개

- ① 2012년 6월~11월 말까지 수단 접수를 마감
- ② 2012년 12월~2013년 1월 말까지 입력, 개통
- ③ 완결 후 신청받아 전질 및 파보책 발간계획

-명문족보에 올라야 명문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족보는 앞서가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은 한글인터넷족보를 원합니다-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가 내년초 완결됩니다-

- 지난 2010년 8월 제1단계로 수단접수를 마감하고 미완(未完)상태로 개통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의 완결을 목표로 편찬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 제1단계 편찬사업 때 누락된 일가들의 수단 접수를 2012년 11월 말까지 마감한 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입력작업을 끝내고 개통하여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완결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2013년 상반기 중에 일가들의 신청을 받아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2012년 11월말 마감 때까지 수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서 누락되며, 2013년에 들어 희망하는 일가들에 한해 발간 예정인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譜冊)에도 등재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일가들께서는 빠짐없이 조속히 수단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단을 신청한 일가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말까지 입력을 끝내고 바로 개통됨으로 일제히 검색 및 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수단비는 1인당 12,000원 입니다.
- 50인 이상 신청하는 종파에 대해서는 30% 감액됩니다.
- 서원군파, 문간공파의 CD파보(派譜) 보유자는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1인당 수단비 12,000원에서 8,000원을 할인, 4,000원으로 감액합니다.
- 종파회장은 유사(有司)가 되며, 입보(入譜), 교정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2,000원 입니다.
 -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 자손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진은 10cm&X15cm=4인치X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이며, 족보 내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 요령은 중앙총친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족보' 찾아가기 도움말
중앙총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
 '인터넷' 주소창에서 **청주한씨중앙총친회**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 (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총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 **'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인터넷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중앙총친회로 전화 (02-720-6370) 주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 요령
(1) 연도 표시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1980년 2월 15일 생, 1980년 2월 15일 졸.
(2) 학력·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학력·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묘 기재방법
 예) 묘(墓):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을좌(乙坐) 함평(合窆) 또는 쌍분(雙墳)
(4)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영(金惠英) 김해인(金海人) 부친 英洙 생,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합니다.

- (5)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부(夫) 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사위의 생, 졸, 경력 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와 외손녀)이 있어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 (6) 자(字),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영호(英鎬), 호 무농(無農)으로 기재합니다.
-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세(世)를 기재하고,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 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오.
- (8) 수단용지는 홈페이지(www.cheongjuhan.net) 또는 daum, naver 등 포털 사이트의 '통합검색란'에서 '청주한씨중앙총친회'를 입력하여 '청주한씨' 홈페이지가 열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과 특징
 (1) 직계·촌수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국·한문을 혼용,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4)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별 인구수 등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5)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가족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는 단점보다 장점 많다 CD족보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 ① 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젊은 세대 후손들의 선호(選好)와 이용도가 압도적이다.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있어 인터넷족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큰 흐름이다.
- ② 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장점이 많고 단점은 거의 없으며, CD족보는 인터넷족보에 비해 단점이 많고 장점은 거의 없다.
- ③ 인터넷족보는 국내외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있어야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다.
- ④ 인터넷족보는 CD가 없어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후손들이 족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행자들도 CD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없으면 열람이 안되고, 여행자들도 CD를 갖고 다녀야만 족보를 열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 ⑤ 인터넷족보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쉬우나, CD족보는 일단 반질(鑄成)된 후에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어렵다.
- ⑥ 인터넷족보는 출생, 사망, 행적 변경에 따른 수단(收單)을 수시로 접수받아 족보에 등재할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새로운 CD족보를 현실적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워, 보통 20~30년 주기로 제작되는 다음 족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⑦ 인터넷족보는 제작기간이 짧다. 수단 접수 후 짧게는 몇일 이내에 자기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총친회 사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축하나, CD족보는 제작기간이 길어 수단 접수 후 최소 1~4년 정도는 기다려야 족보를 볼 수 있다.
- ⑧ 인터넷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없으나, 전자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 ⑨ 인터넷족보는 입력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프린터로 출력하여 새로운 보책(譜冊)을 만들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불가능하다.
- ⑩ 인터넷족보는 제작비용이 CD족보나 보책보다 저렴하다. CD족보는 제작하여 판매하면 일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제작비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수단비를 내는 구성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 ⑪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CD를 읽을 수 있는 기계장치가 향후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CD를 이용하는 CD족보도 사라지고 인터넷족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25" 디스켓이 완전히 없어졌고, 3.5" 디스켓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